Ⅱ 정부의 대환대출 인프라 추진 현황 및 기대효과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2023년 5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회사 간 경쟁으로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개인 신용대출 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1]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환대출 시장의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환대출 현황 및 연구배경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기존의 대출금 또는 연체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환대출은 탐색비용이 높은 상품으로 새로운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상품 간의 비교는 물론 기존의 대출기관에 방문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및 상환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정수민 2023). 기존의 대환대출 절차는 대출의 상환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림 Ⅱ-1〉은 기존의 대환대출 절차를 보여준다. 금융소비자는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통해 필요한 정보의 서류를 전달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법무사 왕래 등 여러 업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 또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개별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만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 대출비교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대환대출 전용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3개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수수료나 대출이동 시 이자 경감분 등 대환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확인이 제한되었고 마이데이터를 통한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되었다. 이렇듯 기존의 대환대출 시장은 금융회사 간 인프라의 부족, 대환대출 상품 공급의 제한 등으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11. 14),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그림 Ⅱ-1〉 기존 대환대출 이용단계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11. 14),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데 이어 2023년 1월 3.5%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은행의 가계대출평균금리는 2021년 8월 3.10%에서 2022년 12월 5.64%까지 상승하였으며, 2023년 8월에는 4.83%로 나타났다.[2]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또한 점증하였다.

이에 2022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3년 5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중개 플랫폼이 참여하여 신용대출을 우선 실시하고 2023년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환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대출 금융회사는 차주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새로운 차주를 유치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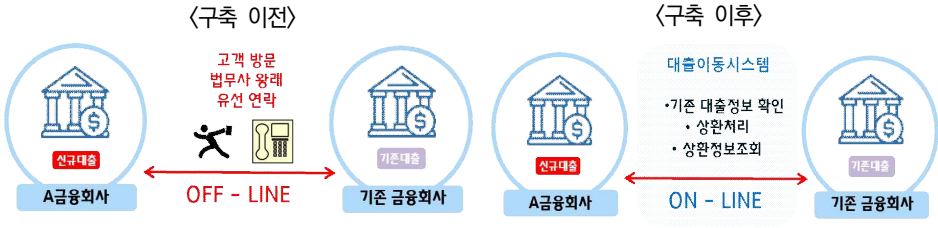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2.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 및 현황

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선택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대출 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출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기본방향은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프로세스를 실현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손쉬운 대출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결제원 망을 활용해 대환대출 상환 요청, 필요한 정보(상환필요금액, 상환계좌, 대출약정금액 등)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의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함으로써 〈그림 Ⅱ-2〉와 같이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회사가 취급하는 대출 상품 간 이동으로 여신거래약관 등에 따라 표준화된 대출이다. 다만, 담보권 이전 등과 같은 추가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지 않는 대부업권이나 관련 대출 규모가 미미한 보험업권은 최초 시행단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업권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대출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대환대출 업무 처리 과정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Ⅱ-2〉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 전후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 11. 14),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현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대환대출 시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출비교 플랫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확대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출비교 플랫폼을 핀테크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의 개별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도 대출이동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환대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대출비교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플랫폼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환대출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대출 갈아타기 결정을 하게 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 또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의 해외 선례가 없는 만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크기 등과 상관 없이 고객 입장에서 최적의 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비교·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다.[3] 또한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여 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현상이나 자금운용의 단기화 등 대환대출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했다. 또한,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하여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절차[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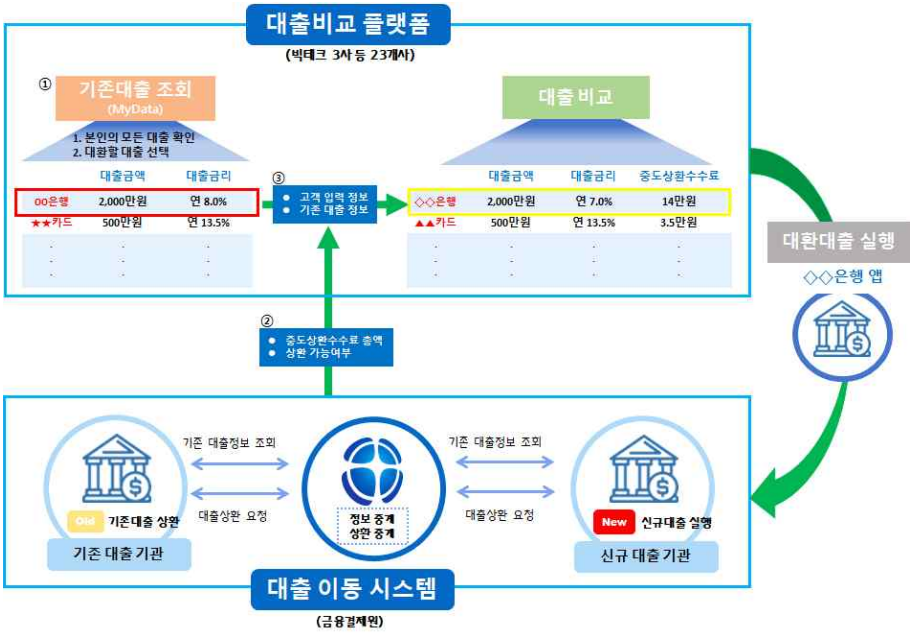
대환대출 서비스는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의 자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림 Ⅱ-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①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금액 등을 먼저 확인한 후, ② 중도상환 수수료 및 상환

3)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 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대출모집법인('대출중개 플랫폼') 등록요건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023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이해상충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음(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 3. 10,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 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코스콤 검증 외에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에 의한 교차검증, 중요사항 변경 시 재검증 등 검증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음(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9. 26),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5. 30), "내 손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③ 본인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규 대출조건을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때 금융결제원은 플랫폼에 상환가능 여부, 중도상환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각 플랫폼 앱은 우대금리 조건의 선택 및 해제에 따른 실시간 금리 변화와 같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이동이 얼마나 유리한지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대출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의 정보를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금융회사는 정보를 토대로 가심사를 진행하여 신규대출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한다. 소비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규대출 조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를 비교하여 새로운 대출로의 이동을 결정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심사·계약이 진행된다. 계약이 완료된 후,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되며, 기존 대출이 완전히 상환되었다는 사실과 신규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종료된다.

〈그림 Ⅱ-3〉 대환대출 서비스 개요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자료(2023. 5),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관련 참고자료”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하다.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대출계약을 실행하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간 상환 처리를 전산화한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소비자의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상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및 현황[5)]

2023년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또는 캐피탈회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하고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자사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선택한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에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대출의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한다. 출시일 기준,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참여한 회사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이며, 자사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5개 은행과 7개의 저축은행, 그리고 7개의 카드회사와 4개의 캐피탈회사이다. 또한 53개의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서비스에 참여하여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의 대출 조회가 가능하고 대출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대출조건이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마다 상이할 수 있다. 인프라 개시 후 점차 많은 금융회사가 대출고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카드회사들의 플랫폼 입점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회사가 플랫폼 입점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금리가 높은 카드회사 입장에서 1금융권과의 금리 경쟁을 통한 고객유치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환대출 실적 대부분은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카드회사들도 플랫폼 입점에 속도를 내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5. 30), "내 손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카드회사 중 롯데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 플랫폼 입점을 검토 중이거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대출을 조회할 때, 카드론 내역이 조회되지 않았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통해 모든 카드론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되었다. 시스템 정비로 소비자가 카드론 대환이 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어 카드회사가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초에 금리를 낮출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후 현황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초반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출시 4일 만에 대출 이동금액 1,800억 원을 넘어섰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2.5%에서 6.4%로, 16.2%에서 5.5% 등으로 인하한 여러 사례가 확인이 되었다.[7] 또한 출시 이후 2개의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추가로 개시하여 2023년 6월 21일 기준 총 9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5개의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8] 대환대출 이용실적도 계속 증가하여 2023년 9월 15일 기준 총 67,384건, 1조 5,849억 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9] 2023년 11월 10일 기준으로는 대출이동 총액이 2조 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일평균 대출이동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신용대출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가 가장 활발한 은행 소비자의 이동이 아직은 많은 가운데, 제2금융권 간 이동 및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사례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비중이 2023년 6월 20일 기준 약 82.5%의 높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고객의 이동은 출시일 당시 0.8%에서 2023년 6월 20일 기준 16.2%까지 늘어났다. 2023년 11월 10일 기준 전체 대출이동 중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대출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2023년 6월 1일(9.3%)에 비하여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그간 이자 경감 사례를 접한 중·저신용자, 제2금융권 소비자의 이동이 활발해진데다, 대환대출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보다 많은 금융회사가 경쟁에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수는 2023

6) 뉴스핌(2023. 6. 26), “금융당국에 백기... 카드회사들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입점키로”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6. 5), “6.5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6. 21),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9. 26),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1. 12),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1. 12),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년 6월 20일 26개에서 2023년 11월 7일 47개로 늘었다.[12] 일평균 대출이동의 규모를 보면 출시 초기의 활발한 이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출시일 이후 2023년 6월 21일까지 일평균 227억 원의 대출 이동이 있었다가 2023년 9월 15일 기준으로는 일평균 147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출시일 이후 2023년 10월 10일까지의 기준으로는 일평균 185억 원으로 다시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의 기대효과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책적 목표는 금융회사 간 경쟁촉진을 통한 실질적인 금리 인하로 볼 수 있다. 인프라를 시행함에 따라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금리경쟁 시스템이 마련되어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대출정보가 부족하고 이동하는 절차 또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을 계속 유지하였으나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후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3]에 따르면 2023년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후 2023년 11월 10일까지 총 이자절감액은 398억 원, 평균 이자절감폭은 약 1.6%p에 달하며,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34점(KCB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자절감 사례를 보면 은행 한도대출 1,500만 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금리를 9.9%에서 5.7%로 인하한 사례,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8,000만 원을 은행으로 이동하여 금리를 15.2%에서 4.7%로 낮춘 사례, 그리고 캐피탈회사의 일반 신용대출 1,800만 원을 카드회사로 이동하여 금리를 16.9%에서 11.9%로 인하한 사례 등 업권 내 또는 업권 간 이동을 통해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존재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3년 말까지 대환대출 가능 범위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마련했다.[14] 2023년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의 구성을 보면, 신용대출이 약 238조 원인 데 반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1. 12),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2023. 9. 26),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1. 12),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9. 26),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및 별첨

약 971조 원에 달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될 경우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인하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당초 목표인 금리 인하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금융권 이용자들의 대출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을 갈아탐으로써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는 금리 수준이 가장 낮은 은행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2금융권을 이용해 온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는 은행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1금융권인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이 가장 컸으며 저신용자 연체부담 완화를 위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5)]

한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대출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동이 용이해질수록 소비자의 대환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영역 확대 및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신규대출 비교시장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거나 대환대출중개업무 증가를 통해 수수료 수익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15) 뉴시스(2023. 6. 28), "대환대출 '2금융권→1금융권' 3.8% ··· 저신용자 소외 지적"